

# 'SK심장'엔 비정규직 없다… 2.8만명 중 99.5% '정규직'

## 데이터로 보는 10대 기업

### <7> 우리가 몰랐던 SK하이닉스

지난해부터 無정년 제도 도입 정년된 엔지니어 계약직 연장 노동안정성·유연성 동시에 쟁여

SK하이닉스의 직원 중 99.5%는 정규직 근로자다. 정년을 채운 일부 엔지니어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형태를 전환하며 계약직 비중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노동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키를 동시에 잡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SK의 심장'으로 통한다. 통신(SK텔레콤), 에너지(SK이노베이션)와 함께 그룹내 3대 핵심 사업으로 꼽혔던 반도체는 이제 '1강'으로 자리매김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DRAM 수요가 늘면서 그룹에서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고 14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SK하이



닉스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1% 이상 보유 지분을 늘리기도 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SK하이닉스의 데이터를 살펴봤다.

◆**계약직은 0.4%뿐…자산규모 SK계열사의 28.4%**

19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기간제 근로자는 단 115명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자(2만8122명) 가운데 0.4% 수준이다. 2018년에는 94명, 2017년에는 110명 정도로 0.5% 이상을 넘기지 않았다.

계약직 근로자는 앞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

행한 '무(無)정년' 제도 때문이다. 30년 이상 반도체 개발·제조 기술을 익힌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60세 정년이 된 엔지니어 가운데 무정년 대상자 일부를 뽑아 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해 매년 근로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내부에서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는 10년 8개월이다. 일반적인 대기업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여성원이 11년 8개월로 남직원(10년 8개월)보다 더 길었다. 총 임원 수는 189

명이다. 등기이사와 사외이사가 각각 3명, 감사위원회 위원과 미등기임원이 각각 3명, 180명씩 활동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의 0.67% 수준으로 임원이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등기이사 3명은 2018년 인당 약 17억 800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호황기로 대표됐던 2018년 총자산 60조9800원, 자기자본 45조6600원 수준을 기록했다. SK그룹에 소속된 계열사 118곳 중 압도적인 1위다. 총자산 규모상 2위를 차지한 SK텔레콤(28조8500억)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SK 계열사 전체 총자산(214조6400억) 중 28.06%를 차지했다. 매출액 역시 약 40조3200억원으로 계열사 전체 매출액(183조5600억원)의 21.97%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지분률, 2010년 6.08%→2020년 10.24%**

지난해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는 보통주 1억4510만주(20.07%)를 소유한 SK텔레콤이 최대주주에 자리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9.05%,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5.08%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지난달 SK하이닉스의 보유 지분을 10.24%까지 늘렸다.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지난 16일 종가 기준(9만9200원) 약 7조4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전 2010년 10월 국민연금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은 6.08%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이 꾸준히 사들인 이유는 반도체 업황회복에 대한 확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업종이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회복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현재보다 20% 이상 상향조정된 12만원으로 설정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12만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 100조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반도체 기술에 향후 10년 간 1조 투자"

정부, 과제 완료·사업공고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시장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 합동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착수를 위한 과제 기획을 완료하고, 20일부터 사업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미래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사업 기획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880억원, 산업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

지 5216억원을 출연해 총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예타 사업 중 1조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하다. 올해는 양 부서 합산 총 891억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의 분야간 연계를 위해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AI 반도체는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핵심이자 격전지로, 아직 압도적 강자가 없는 산업 초기 단계이므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정부의 투자와 민간 역량을 결합해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1등 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지원 명분으로 '평택형 일자리' 수면 위로

### » 1면 '쌍용차 '경영정상화' 총력' 서 계속

정부 측은 쌍용차 경영난이 심화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 문제가 커진다는 점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쌍용차 경영이 어려워지며 10여년 전 해고노동자들은 복직이 결정된 이후에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된다. 정부가 쌍용차의 지원에 나설 경우 한국지엠에 이은 또 다른 선례로 낙관된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상생형 일자리인 '평택형 일자리'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다만 쌍용차 노사가 단종된 투

일자리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형 일자리로 중국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쌍용차 자체 전기차 개발이 어려워지고 중국업체에 도장 기술 등이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 노사는 평택형 쪽 부지에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사실 상생형 일자리는 수도권에 적용할 수 없는 정책이어서 정부도 고심 중이다. 고엔카 사장과 회동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론되지 않았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 탈모·비만·치매 관리·운동추천… 미래 먹거리 부상한 디지털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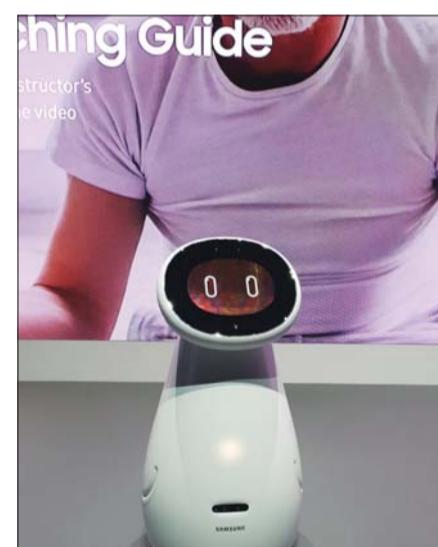
### 네이버 스타트업 4곳 신규 투자 삼성전자 '삼성봇 케어' 공개 사용자 건강 점검, 복약 관리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에 주목하고 있다. 건강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헬스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디지털 헬스에 초점 맞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기술들을 보면 탈모, 비만, 치매 관리부터 운동 추천까지 건강 관리에 초점을 둔 제품으로 다양하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자회사 D2SF를 통해 디지털 헬스 분야 스타트업 4곳에 신규 투자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탈모, 성조숙증 예측 서비스를 하는 아이크로진, 운동에 최적화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운드짐, 전두엽의 혈류량 변화를 관찰해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



AI 기반의 소셜 로봇 파이보.



삼성전자가 'CES 2019'에서 공개한 삼성봇 케어.  
/구서윤 기자

건강관리 일정을 설정·모니터링 하고 정기적인 보고도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공 모양으로 크기가 작아진 '볼리'를 선보였다. 향후 인간의 감정까지 관리해주는 케어봇으로 진화할 예정이다.

이달 초 열린 'CES 2020'에서는 다양한 업체가 디지털 헬스 기술 경쟁을 펼쳤다. 인간과 소통하며 건강 관리를 돋는 미니 로봇, 디바이스를 통해 두피를 측정하고 두피 상태 분석을 통해 두피 관리와 탈모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 비타민D가 부족한 현대인이 집에서도 비타민D를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조명, 운동 검사를 통해 맞춤형 운동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통, 매트 위에서 요가하는 사람의 동작이 정확한지 봄주는 스마트 매트, 올바른 칫솔질을 돋는 스마트 칫솔 등이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업체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사람들이 직접 건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의료인의 편의를 돋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보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분야는 앱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앱 앤드로이드가 지난해의 전 세계 모바일 앱 생태계와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강 및 피트니스 앱 사용 시간은 2017년 대비 5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 yuni2514@